

“이젠 덩크슛도 넣을 수 있어요”

건협 대전·충남지부서 심장병 발견하고 수술한 김승민군

“이젠 덩크슛도 넣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랜 만에 만난 김승민군(대전 S중 3년)은 제법 힘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기쁨의 탄성을 토해냈다.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란 그렇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장난치고…

축구·농구·야구 등 갖가지 운동을 하면서 뛰어 노는 건강한 어린이들의 모습은, 부모의 마음을 더없이 편안하고 행복

하게 해주고, 또 그것이 자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는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어디 그 뿐이라. 아이들 자신도 그러한 왕성한 활동을 통해 자신을 키우고 또래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며 사회성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에게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 온다면, 아이들 자신이 고통과 좌절을 겪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부모들까지도 차라리 내가 아플 수만 있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고통받으며 절망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모들의 혹은 학교나 지역사회 의 작은 노력과 선택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는 여느 해와

◀8



▲현재 대전S중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승민군과 건협 대전·충남지부 정선미씨.

마찬가지로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 성인병 검진 - 심장병·빈혈·간염·고혈압·신장기능 검사 등-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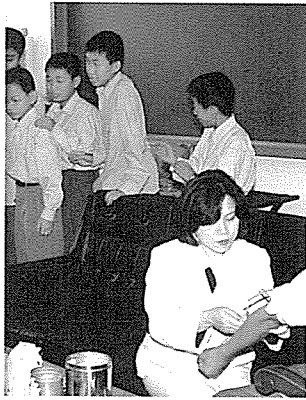
대전·충남지역에 총 4만 7천여명의 희망아동을 대상으로 검진하게 되었는데, 김승민 군이 다니는 대전 S중에서는 250여명의 학생이 검진을 희망했다. 승민군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은 이 검진 중 심전도 검사에서 발견되었다.

‘완전우각지차단’이라는 유소견 결과에 따라 건협 대전·충남지부는 승민군을 종합병원에서 확진·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해 주었고, 그는 결국 심방중격결손에 따른 수술을 받았다.

심방중격결손이란,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의 심방중격에 구멍이 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신체검사 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감기가 오래 가거나 폐렴에 걸리기도 하고, 운동을 견디지 못하는 정도의 일반적인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구멍이 클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며, 만일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심부전증이 와서 생명이 위험해 질 수도 있는 질환이다.

수술을 받고 요양을 통해 완쾌하게 된 김군은 지난 5월부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학교에 나가 수업을 받고 운동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김군은, “운동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계단도 단숨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저 같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라며 심장병 발견에서 치료, 사후 관리까지 함께 해 주는 건협 대전·충남지부에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는 여유를 보였다.

한편 건협 대전·충남지부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매 6개월 간격으로 김군을 정기검진해 주기로 했고, 비만·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운동부족·스트레스·가족성 요인 등과 관련이 있는 소아성인병 검진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한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지 않으면 때를 놓치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어린 연령층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성인병의 경우, 어릴 때부터 관

리하지 않으면 평생동안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어릴 때부터, 아니 출생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연령층에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나 자신·가정·사회·국가의 행복이요 발전인 것이다. 약간의 이상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설사 지금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건강진단을 한번 받아보라. 질병예방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왜 진작...”이라는 말은 너무 늦은 것이다. 나 자신과 자녀, 가족의 건강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72